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역동경제 평창올림픽

2017년 6월 9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6. 8.(목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7. 6. 8.(목)	담당부서	활용촉진과 홍보협력과 FTA협상총괄과
담당과장	박형민 과장(044-203-4150) 전응길 과장(044-203-4130) 권혁우 과장(044-203-5750)	담 당 자	권영석 서기관(044-203-4153) 김세희 사무관(044-203-4132) 이동섭 사무관(044-203-5753)

콜롬비아 FTA 활용지원센터 개소 및 한·중미 FTA 설명회 개최

- 우리 기업의 FTA 활용 촉진 및 비관세 장벽 애로 해소 지원 -
- 한·중미 FTA 홍보 및 우호적 분위기 확산으로 조속한 발효 지원 -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한·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 발효('16. 7. 15.) 1주년을 맞아 **콜롬비아(보고타)에서 자유무역협정(FTA) 활용지원센터 개소**와 우리 기업의 **자유무역협정 활용 촉진 지원을 위한 설명회**를 연다. **파나마(파나마시티)에서는** 한·중미 자유무역협정 실질 타결과 가서명 계기, **한·중미 자유무역협정을 홍보하기 위한 해외 설명회**를 개최한다.

≪ FTA 활용지원센터 개소 ≫

□ **6월 9일 오전 09:30(현지시각), 보고타**에서 진행하는 **자유무역협정(FTA) 해외활용지원센터 개소식**과 이어지는 **한·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 활용 설명회** 등을 통해 **우리 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 촉진**을 위한 지원 활동을 펼친다.

○ 이날 개소식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조영신 통상국내대책관, 김두식 콜롬비아 한국대사, 코트라 양국보 중남미본부장 등이 참석하고, 콜롬비아는 한·콜롬비아 상공회의소 미겔 두란(Miguel Duran) 회장과 통상부 페르난도 후엔테스(Fernando Fuentes) 국장을 비롯한 현지 기업인 150여 명이 참석한다.

*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는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 중 주요 신흥국가에 소재한 코트라 무역관 내 설치한 **FTA 전담 기업지원 창구**로, 현재는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 7개소와 베트남에 2개소를 설치·운영 중

□ 한·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은 콜롬비아가 아시아 국가와 처음으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으로 양국의 교역규모가 매년 평균 15억 달러로, 협정 **체결 이후 교역량이 증가**하면서 **중남미 신흥시장 진출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에 기여**할 것으로 보인다.

○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지 채 1년이 되지는 않았지만 발효 이후('16. 7월~'17.4월) 양국 간 교역액은 12억 6천 4백만 달러로 **전년 동기대비 18.4%가 증가**했는데, 이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교역액 증가율 6.6%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로 한·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이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.

□ 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 활용지원센터는 **헬프 데스크 운영을 통한 상담과 비관세장벽 애로 해소, 신속한 정보제공** 등 우리 기업을 위한 협정 활용 창구로서 센터의 조기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현재 저조한 한·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 활용률(27.4%, '17.3월 기준)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.

≪ 한·중미 자유무역협정(FTA) 해외설명회 ≫

□ 한편, **6월 12일(월) 오전 10:00**(현지시각) 부터 파나마시티에서는 지난 3월 10일 가서명을 마친 **한·중미 자유무역협정(FTA)의 조속한 비준 발효 지원**을 위해 **자유무역협정 설명회**를 개최한다.

○ 파나마는 중미 5개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가장 많고 자유화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, 현지 바이어 등을 대상으로 **한·중미 자유무역협정의 주요 내용**과 **관세인하 혜택 품목**을 설명하고 **협정 활용방안** 등을 소개함으로써 **한·중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인식**을 **높이고 우호적 분위기를 확산** 하기 위해 기획한 것이다.

* 대(對) 파나마 교역 규모('16년) : (수출) 1,441백만 달러, (수입) 339백만 달러

** 한·중미 FTA 전체 자유화율

기준	우리측	중미측				
		코스타리카	엘살바도르	온두라스	니카라과	파나마
품목수	95.5%~95.9%	95.2%	95.1%	95.6%	95.9%	95.3%
수입액	98.7%~100%	98.0%	98.1%	93.2%	99.1%	99.3%

○ 특히, 이번 설명회는 한·중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 국내·외를 통틀어 **처음 개최**하는 행사로 100여 명의 현지 구매자(바이어)와 우리 기업인은 물론 **한·중미 자유무역협정을 담당하는 정부 고위관계자도 참석**할 예정으로 사전 환담 등을 통해 한·중미 자유무역협정이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.

○ 설명회 이후에도 질의 응답과 개별 면담 등 상세한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**현지 기업들의 요구에 대응**하고 **자유무역협정** 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**위상과 신인도를 높이는데 이바지**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산업부는 현재 **한·중미 자유무역협정(FTA) 한글본에 대한 번역·검독**을 진행 중이며 이를 조속히 완료하고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 절차*를 추진할 예정이다.

* 우리나라와 중미 국가 중 1개국 이상이 국내 절차 완료 시 발효 예정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활용촉진과 권영석 서기관(☎ 044-203-4153)에게, 한·중미 FTA 해외 설명회에 대해서는 홍보협력과 김세희 사무관(☎ 044-203-413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'17년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설립 계획

□ 2017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신규 개소 추진

① (남미 - 콜롬비아, '16. 7월 발효)

<선정 이유>

○ 중남미 핵심 소비시장(인구 4,760만 명(중남미 3위), GDP 3,779억 불(중남미4위))이자 풍부한 에너지·자원 등 보유로 경제협력 가능성이 높은 국가

* 10년 내 모든 관세 철폐 예정(자동차부품, 타이어, 섬유제품 등은 5년 내)

○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확산을 위해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**저조한 활용률(27.4%, '17.3월 기준) 제고 필요**

② (ASEAN - 인도네시아, '07. 6월 발효)

<선정 이유>

○ **FTA활용 저조***(36.7%, '17.3월), 베트남 제외 진출기업 수 최다(5,522개)**

* 사유 : '복잡한 원산지 규정·증명서 발급절차(42.2%), 정보부족(20.2%)' 등('14년 무역협회)

** '68년 ~ '16년(누적기준) : 필리핀(3,986개)> 태국(2,526개)> 캄보디아(2,733개)

*** 한-ASEAN FTA발효('2007.6.1) 10주년 / ASEAN 설립('1967.8.8) 50주년

□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운영 현황

○ **(목적)** FTA 주요 교역국* 현지 진출기업(바이어 등)의 FTA 활용 상담 및 애로 해소**등

* 한중,한베FTA 발효('15.12.20) / 중국(7), 베트남(2) KOTRA 무역관에 설치 운영 중

** 비관세 장벽 애로 상담, 상무관을 통해 체결국 정부 건의, 국내이행위 등 제출

○ **(주요업무)** FTA 특혜관세 활용 상담 및 홍보(KOTRA 무역관 마케팅 사업과 연계), 비관세 장벽(통관, SPS, TBT 등) 대응 지원 등

○ **(추진실적)** FTA 활용상담 4,042건(3,783개사)* 및 설명회 47회 / 자문(수출계약, 통관, 물류, 회계, 세무 등) 208건

* 내용 : 관세율(580건) > 원산지기준(210건) > HS코드분류(137건) > 비관세장벽(88건)

○ **(성공사례)** 수출성약 및 MOU체결 7건, 비관세장벽 해소 9건(발굴 25건)